

2014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3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4. 1.21(화) 16:00~18:20
- 장 소 :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 참 석 : 위원 9명 전원 참석
 - 외부전문가 및 동문 : 김재식(위원장), 양호경(부위원장), 조춘 위원
 - 학교대표 :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주무열, 정주희, 고창원 위원

2. 회의 안건

-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3. 전차 회의결과 보고 : 예산과장

전차 회의록 내용 중 “논의 끝에 학생 기록원 1명 배석을 검토하기로 함” 을 “논의 끝에 학생 기록원 1명 배석을 허용하기로 함” 으로 수정하여 접수함

4. 회의 내용

- 안건 및 보고사항 : 예산과장
 - 2014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 회의 내용
 - 등심위 위원 9명 중 9명 참석에 따라 회의 개최
 - 학생측 기록원 배석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위원 외 등록금심의위원회 업무 담당자 1명을 제외한 배석자(학생기록원 포함) 전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기로 함
 -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
 - 학생측: 항목별 결산내용을 차기 등심위에서는 제공 받을 수 있는지?
 - 학교측: 재무과에서 2013년도부터 결산시 항목별 결산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학교측: 수정 등록금 책정안(학부·대학원 동결 및 장학금 확충계획) 설명
 - 대학원 장학금 확충을 위해 학부장학금을 활용한 바가 있으므로 장학금을 확충해 학부 장학금은 증액하고, 대학원 장학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함
 - 특히, 재정여력이 있을 경우 장학금을 더 확충할 계획임을 설명
- 학생측: 예전과 달리 발전기금 전입금이 없는 것은 등록금 인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법인회계와 달리 자료 제공이 안되므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음
- 학교측: 발전기금에서 대학 각 부처에 지원하는 재량사업비가 종전 200억원 수준에서 1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법인회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여력이 없었던 것임. 발전기금도 재단 이사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고, 법인회계 전입금과 대학 발전을 위한 재량사업비로 세출을 구성함
- 학생측: 발전기금의 재정문제는 올해 안에 모두 해결되는가?
- 학교측: 예측하기 어려움. 기부형식, 수익 등 변수가 있음. 일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금리 기조는 장기적인 임팩트가 있음
- 학생측: 내부차입금은 계속 연장해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규모를 볼 때 인상안은 타당하지 않음
- 학교측: 인상하는 것이 대학 재정운영에 도움이 됨. 내부 차입금은 대학의 부채이므로 부담이 되는 부분임. 이 부담은 향후 대학과 학생에게 전가되는 것이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음
- 학생측: 올해 180억원의 불용액이 예상됨을 고려할 때 적어도 등록금 5% 인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됨
- 학교측: 교원 충원율로 인해 발생한 이월금임. 교원 충원은 여러 가지 고려요소가 있으며, 이월금은 전액 다음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특히,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부처별 요구사업의 일부분임. 예비사업 후보가 많은 상황에서 이월금을 사유로

등록금 인하를 검토하기는 어려움

- 학생측: 교원 인건비의 1/4은 학생의 부담임을 고려 할 때 매년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것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임
- 학교측: 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원 충원과 우수한 교원의 확보를 위한 필요 재원 확충에 학생의 부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고민도 함께 필요함
- 학생측: 이번 학교 재정이 어려운 큰 요인이 발전기금 문제임을 볼 때 발전기금 자료의 제공이 필요함. 학생소통팀에 발전기금 자료요청을 하였는데 아직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음
- 학교측: 발전기금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단임. 학교장이 발전기금 이사장을 겸직한다고 해서 등심위의 요청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발전기금 이사 중 상당수는 외부 인사임. 당연직 이사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음. 단, 이사회에서 금번 발전기금 재정 문제에 대하여는 설명을 요구할 예정임

〈대학에서 발전기금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의록에 남기기로 함〉

- 학생측: 내년에 발전기금에서 50억원이 전입되면 등록금 인하요인이 생기는 것인가?
- 학교측: 부채해결이 우선임. 또한 대학의 기본운영경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출연금대 등록금의 비율은 6:4정도 였는데 현재는 7:3 수준까지 내려왔음. 등록금이 줄어든 것을 출연금이 보완하고 있는 상황임

〈위원장이 대학에서 수정 제출한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안전상정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학생측 10분간 정회를 요청함〉

〈학교측의 재차 수정 제안한 대학·대학원 0.25% 인하 및 장학금 확충안에 대해 안전상정에 동의하고 표결하기로 함〉

4. 심의 결과

- 학교측 수정 등록금 책정(안)인 학부·대학원 수업료 0.25% 인하, 장학금 확충 계획(안), 치의학대학원 학사·석사 통합과정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안건 상정에 동의하고 공개 표결을 하기로 함
-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심의를 통과함